

2009 말말말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노무현 前대통령 유서

■ 광주·전남 말말말

◇“국가원수에 대해 당연한 예의”=11월22일 광주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서 ‘MB어천가’논란을 일으켰던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발언을 되풀이하며.

◇“현재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여타 후보들도 연말에 가면 빠질 것이다. 다른 후보들의 시동이 꺼지는 것을 보고 시동 걸겠다”=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10월13일 내년 선거 후보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며.

◇“우주의 기가 타이거즈를 감싸고 있다”=프로야

“국가원수에 대한 당연한 예의” 박준영 지사 ‘MB어천가’ 해명

구 기아타이거즈 조범현 감독이 10월19일 SK와 한국시리즈 3차전을 앞두고 KIA가 이기게 돼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기아는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4승3패로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공작지를 태워 콩을 삶아서 해서야 되겠는가”=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월20일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삼국지 중 조조의 아들 조비가 동생 조식과 갈등하는 고사를 비유, 아권의 결속을 촉구하면서.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다가왔습니다”=11월 25일 광주를 방문한 한스-올리히 자이트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언어·문화·음악 등 문화적 격차와 이질적인 정서를 줄이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성공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순간 흥분이 좀 있었는데 넘어가는 공은 보지 못했어요”=기아타이거즈 나지완이 지난 10월 24일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뒤 기자를 만나.

■ 국내 말말말

◇“우리 정치의 수직”=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월1일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친박성향의 정수성에게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사퇴를 권유했다고 알려진 것을 비판하면서.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6월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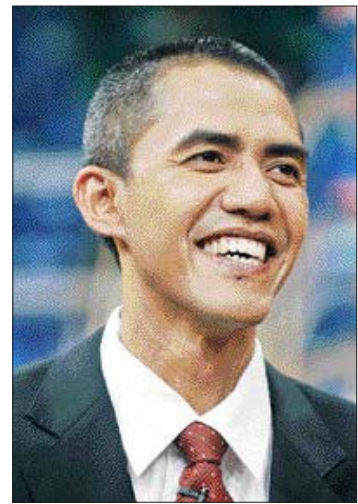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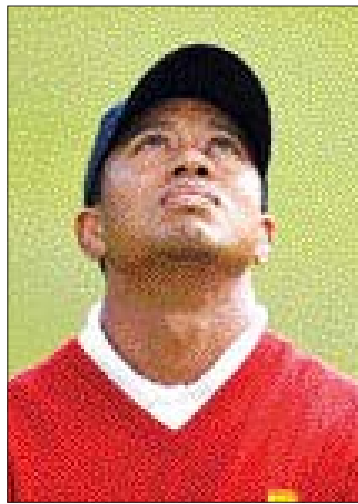
◇“대중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이명박 대통령이 6월15일 라디오 연설에서 경쟁 문화 타개를 강조하며.

◇“50년 민주헌정사를 X칠하는 행위”=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7월2일 환노위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위원장 대행을 선언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스폰서 검사”=민주당 이강래 원내대



2009년은 말없이 일만 하는 소의 해였지만 과거 어느 해와 다를 없이 말로 시작해 말로 저물고 있다. 올해 어떤 말들이 인구에 회자됐는지 분야별로 되짚어본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노무현 전대통령,故 김수환 추기경,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김대중 전대통령 장례식 모습, 마이클 잭슨,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DJ와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특수관계” 김영삼 前대통령 “신사업도 M&A도 뭘 해도 모두 복싱” 김승연 한화회장

표가 7월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적절한 후원금을 받은 검사라고 비판하면서.

◇“(DJ와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특수관계”=김영삼 전 대통령이 8월10일 연세제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빗자루를 들고 미당 쓰는 일이라도 할 것이다”=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9월30일 권익위원장 취임 첫날 기자들과 만나.

◇“좋은 부모, 좋은 선배 만나서 이 자리에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9월4일 갤럭시 국제기능올림픽 경기장에서 ‘젊은 나이에 부담도 많고 일도 많아

피곤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뭘 해도 복싱이다. 신사업도 복싱이고 M&A도 복싱”=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9월10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앞서 대우건설 인수 문제를 언급하며.

◇“재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답답한 심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에서의 스노보드 대회 개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12월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의상 콘셉트는 백의민족이었죠”=골프선수 양용은이 8월17일 아시아 남자로는 최초로 메이저골프대회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뒤 상·하의부터 골프화까지 흰색으로 차려입은 의상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야구대표팀 김민식 감독이 3월20일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베네수엘라와 준결승을 앞두고.

◇“수영계 파벌 때문에 힘들었다”=수영선수 박태환이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 진출에 실패한 뒤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을 털어놓으며.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고(故)김수환 추기경, 임원 당시 주변인들에게 임버릇처럼 들려줬던 말로 김추기경 선종 후 각 성당과 용인묘역에 이 말을 적은 현수막이 걸렸고 각계에서 회자됐다. 이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이 말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바꿔 차량용 스티커로 배포했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여대생 이모씨가 11월9일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키 작은 남자와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키가 작으면 일단 싫다, 180cm는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답함.

◇“옛지있게 해”=SBS TV 드라마 ‘스타일’에서 패션잡지 편집장 박기자(김혜수 분)가 부하들에게 지시할 때 입에 달고 다니던 말.

■ 지구촌 말말말

◇“미국은 굶픈 기부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월12일 미국에 분담금 납부 약속을 제때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이슬람과 전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의 6월4일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대이슬람관 화해 연설

◇“잭슨 얼굴이 온통 흰색이어서 그가 흑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6월25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전 관광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마치 관심을 끌려는 꼬마와 철부지 10대 같다”=윌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7월21일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 거친 표현 때문에 그는 북한으로부터는 ‘그녀자, 소학교 녀학생’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반기문 “美는 굶픈 기부자” 힐러리 “北은 철부지 10대” 우즈 “골프 무기한 쉬겠다”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風雨同舟)”=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7월29일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 중 미-중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무장관은 남편이 아니라 나”=클린턴 장관이 8월10일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킌사사에서 남편의 견해를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 발끈해 하며.

◇“돈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올 것”=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전 총리가 8월23일 돈이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주는지를 묻는 학생들에게 답함함.

◇“우리는 미지의 세계와 조우하게 된다”=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9월16일 총리 지명 직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의 발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테러이사회로 불러야 한다”=무아마르 카다피가 9월24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90분 동안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자기 이해에만 충실해왔다고 비난하며.

◇“그의 아내(미셸 오바마)도 선탄을 했다”=베를루스코니 총리가 9월27일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뒤 지지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만나 나는 얘기를 전하면서.

◇“미국 적자는 위안화 환율 탓이 아니다”=저우원중 주미 중국대사가 12월3일 미중관계위원회 만찬에서 미국의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은 위안화 환율이 아니라며.

◇“골프 무기한 쉬겠다”=볼블론으로 곤욕을 치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12월12일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에게서 “나와 골프 가운데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받고.

**장수 바다장어**

100% 자연산

장수바다장어

010-383-1110

**영암 매력한우**

맛있는 직판장

영암 매력한우

173-8338